

## 9강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들(고후 7:2~16)

(읽을 말씀: 5~13절)

### 오늘의 포인트

- 위로와 기쁨이 상황적이라기 보다 신학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라.
- 우리의 고난을 통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 목회자의 설교의 어조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라.

### 문맥 이해

#### 1. 대상이 바뀌었다: 전체 교회에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말한다.

##### 2:14~7:1

-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 특별히 중간편지를 보고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 ‘하나님과 화목하라’(5:20)
-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6:1)
- ‘그들은 불신자들이니 내쫓으라’(6:14~7:1)

##### 7:2~9장

(7: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 어조를 바꾸어 그의 중간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 참 신자들이고, 자신의 참된 영적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함과 담대함의 어조를 보인다.

#### 2. 2:13에서 7:5로 연결된다.

(2:12~13)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7: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 사도는 이 삽입부분(2:14~7:4)에서
  - 자신의 사도됨
  -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언약의 직분의 영광을 설명했다.

### 본문의 정서적 표현들

- 침체(5) —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 침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위기다.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godly sorrow, 10)
- 위로와 기쁨(4~9, 13,16)

##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더욱 담대해진 바울 사도(2~4).

- 바울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가 없다.
- 사도는 자신의 진정한 영적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다.

(7: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 불신자들과 분리됨으로써 자신을 받아들이라.
- 사도 자신의 선한 의도와 삶에 대한 언급

(7:3)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 이 말을 하는 의도: 6:13에서와 같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자신이 공동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표현

(7:4)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 바울의 큰 확신(great confidence)은 큰 자랑(great pride)을 낳았다.
- 이 확신과 자랑이 사도에게 위로와 기쁨을 넘치게 하였다.

##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5~7): 모든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

- 2:13로부터 연결된다.

(7: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 영적 침체에 빠진 사도—육체의 편치 못함, 사방의 환난,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 밖으로는 다툼—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었다면, 복음의 대적자들과의 싸움(빌 1:30; 3:2).

(빌 1:30)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 3: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 안으로는 두려움—디도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염려—안전하지 않은 여행길에서 디도의 안전과 신변에 대한 염려,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7: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 바울의 위로
  - 디도를 만남
  -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교회의 소식—“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
  -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 낙심의 자리에 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 바울의 기쁨
- 회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는지!

## 위로와 기쁨을 주는 고린도의 회개한 성도들(8~13b)

###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 편지를 썼던가?”

- 처음에 나는 그 중간편지를 쓰고나서 크게 후회했었다.
- 너무 심하게 썼기 때문에 고린도교인들이 너무 근심을 하게 될까 염려했었다.
- 그러나 결과를 알게 된 이상 더는 근심하지 않는다.
- 그들은 그 편지때문에 근심했으나 잠시였고, 결국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

### 경건한 근심(슬픔) vs. 세상 근심(슬픔)

(7:9~10)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9),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10) vs. ‘세상 근심’(10)
- NIV—‘경건한 슬픔(godly sorrow)’

###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회개는 (참) 기쁨을 가져온다.

- 사도의 중간편지는 아마도 고린도사람들을 불신자로 가정하고 썼을 것이고(5~6장의 논지를 볼 때), 정말 너희가 믿는 자인가 돌아보라(13:5)는 취지로 심하게 썼을 것이다.
-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뒤에 노심초사 불안, 후회를 경험할만큼 편지는 강했다!
- 결과는 고린도사람들이 경건한 슬픔에 이르게 됨으로써 회개하게 된 것이다.

### 경건한 슬픔의 특징

- 언제나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다.
-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 이 슬픔이 없는 회개는 없다.

### 경건한 회개를 일으키는 편지(메시지)가 필요하다!

- 자연인과 죄인은 죄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
- 불편한 메시지—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는 메시지

### 사망을 가져오는 세상근심

세상 근심—‘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없거나 가지지 못해서 하는 근심’—돈과 물질, 성공과 성취

이 근심에는 약속도 소망도 없다.

경건한 슬픔이 없고 대신 세상 근심만 있는 영혼의 상태는 위험하다.

## 경건한 슬픔이 가져온 회개의 7중 증거(11)

(7: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 간절함(earnestness)
  -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의도적으로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2. 변증(변명)하게 함
  -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 방관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적극적으로 변증함으로써 바울 사도를 향한 그들의 충성과 사랑을 보이고 싶어한다.
3. 분개함(분함)
  - 바울 사도를 대적했고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분을 가지기 시작했다.
4. 두려움
  -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5. 사모함
  - 그들은 바울 사도와 다시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사모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6. 열심
  - 그들은 바울 사도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열심을 드러냈다.
7. 벌함
  - 바울 사도를 대적한 사람들을 바르게 벌하려는 태도를 그들이 보여주기 시작했다.

## 성령께서 주신 은혜

-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회개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중간편지를 쓴 것이었다.
- 이들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다.
- 바울 사도의 진심은 통했고, 성령님께서서는 그들을 회개로 이끄셨다.
- 이로써 그들은 시험을 통과했고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 위로와 기쁨을 주는 디도(13b~15)

바울 사도는 왜 디도의 옴으로 인하여 기뻐했는가?

### 디도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다(13b~14).

(7:13~14)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고린도교인들을 자랑했었다.
- 고린도교인들이 디도가 가지고 가는 편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디도를 안심시켰었다.
- 그러나 바울 사도의 심령은 편치 못하고 눌렸었다.
-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바울 사도를 위로했고 기쁨을 주었다.

## 디도 자신의 조마조마함

- 바울 사도의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디도는 말할 수 없는 부담을 안고 고린도에 갔다.
- 고린도 사람들이 감히 바울 사도 자신을 대적하였다면 그리고 그 대적하는 바울 사도가 심히 강한 어조로 쓴 편지를 자신이 가지고 간다면,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여라(If you don't like the message, kill the messenger).”

## 결과

- 고린도 사람들 대다수는 중간 편지를 보고 회개했다!
- 디도는 크게 기뻐했다.
- 디도의 기쁨은 곧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

##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순종이 디도의 기쁨이 되었다(15).

(7:15)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뉘그러움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 회개한 고린도 성도들은 디도를 영접하였다.
  - ‘두려움과 뉘그러움’ 디도를 영접하였다.
  - 디도에게 순종하였다.

## 고린도후서의 전환점(16): 담대함과 기쁨

(7:16)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 바울 사도의 위로와 기쁨은 경험적이기 보다 신학적이다.

바울의 담대함(확신)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라기 보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였다.

바울 사도 자신의 위로와 기쁨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서 오는 것이라기 보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 전환점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오르내림을 사용하신다.

비록 우리 자신은 인생의 부침 속에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낙심하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바울 사도의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위로와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고린도교회의 영적 아버지와 목자로서 바울 사도는 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전환점이다.

## 오늘의 적용

-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경건한 슬픔으로부터 참 기쁨을 누리라.
-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 당신의 고난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구하라.